

인 적 사 항

1. 성 명(국문) : 김 영 세

(한문) : 金 泳 世

2. 생 년 월 일 : 1962.10.23.

3. 현 직 : 연세대학교 교수

4. 학 력 :

연세대학교 경제학 학사 (1985)

연세대학교 경제학 석사 (1987)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경제학 박사 (1992)

5. 주요경력 및 연구업적(5개항 이내) :

경 력 :

- ① 영국 런던대학 조교수(1994-1995)
- ② 한국산업조직학회 사무국장(2002), 「산업조직연구」 편집위원장(2010-2013)
- ③ 연세대학교 기획실장(2012-2016)
- ④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 겸 자금지원심사소위원회 위원장(2013-2015)
- ⑤ 연세대학교 상경대학장 겸 경제대학원장(2022-2024)

연구업적 :

*전부 단독 연구

- ① "Equilibrium Selection in n -person Coordination Games," *Games and Economic Behavior* 15(2), 203-27, August 1996, Academic Press.
- ② "Satisficing and Optimality in 2x2 Common Interest Games," *The Economic Theory* 13(2), 365-75, February 1999, Springer-Verlag.
- ③ "Income Distribution and Equilibrium Multiplicity in a Stigma-Based Model of Tax Evasion," *Journal of Public Economics* 87(7), 1591-1616, August 2003, North-Holland.
- ④ "Audit Misperception, Tax Compliance, and Optimal Uncertainty," *Journal of Public Economic Theory* 7(3), 521-541, August 2005, Basil Blackwell.
- ⑤ [저서] 『게임이론』, 초판(1998.8.), 제10개정판(2022.4.), 박영사.



자기 소개서

천학비재한 제가 한국경제학회 수석부회장 후보로 추천됨은 큰 영광이며 기라성 같은 선배 학자들의 면면을 떠올리면 송구할 따름입니다. 존경하는 한국경제학회 회원들께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대학 시절부터 이론경제학에 심취하여 학자가 되고자 꿈꾸었고 그 꿈을 이루는 행운을 누렸습니다. 1992년 UCLA에서 박사 학위 취득 후 석학 Frank Hahn과의 인연으로 케임브리지대학을 거쳐 런던대학에서 정년트랙 교편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어려움을 겪던 차에 귀국의 기회가 찾아왔고 1995년말부터 29년째 현 직장에서 재직하고 있습니다.

귀국 후 십수년은 게임이론, 산업조직론, 공공경제론 연구에 집중하여 25여편의 줄고를 게재하였습니다. *Games and Economic Behavior*, *Journal of Public Economics*를 포함하여 열댓편의 국제 학술지 논문들은 모두 국내에서 이론 것들입니다. 게임이론을 국내에 들여온 초창기 멤버로서 타고의 탁월한 소장학자들과 세미나와 열띤 토론으로 학문의 기쁨을 한껏 누렸습니다. 제 해외 대학 재직 연한이 짧았던 데다 국내 대학의 과중한 책임강의와 행정업무에 시달리다 보니 협업은 쉽지 않았고 단독 연구가 대부분입니다. 공동연구로 시너지를 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오래 남습니다.

저는 연구 못지않게 교육과 후진 양성, 선진학문의 전파, 사회문제 해결과 정책 기여도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게임이론』과 『공공경제론』, 교양서 『게임의 기술』을 포함 여섯 권의 줄저를 출간하였습니다. 『게임이론』은 1998년 초판 출간 이후 최근 제10개정판에 이르기까지 국내외의 연구 성과와 학문 추세를 반영하고자 애썼습니다. 『공공경제론』은 게임이론과 사회선택 이론을 적용하여 경제정책의 정치적 특성과 함의를 분석한 내용을 국내에 소개하였습니다.

저는 게임이론 방법론을 적용하여 실물 경제를 분석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43편의 연구보고서를 출간하였습니다. 연구 주제는 정보통신, 자동차, 철강, 전력, 정유 등 여러 산업과 공정거래 이슈는 물론 민영화, 국민연금, 공-사 건강보험, 국회 세입세출 등까지 포괄합니다. 차관급인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와 공적자금관리위원으로 국가정책을 심의하였고 국민경제자문회의,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평가위원이나 자문위원으로 참여한 바 있습니다. 수상경력으로는 연세학술상, 매경 이코노미스트상, 경제부총리 표창 등이 있으나 동료 학자들에 비하면 부끄러운 수준입니다.

강의와 학생지도 외에 학문 후속 세대 양성을 위하여 2000년 교내 학술동아리 Junior Scholar Club를 창설했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도하고 있습니다. 학기중 위클리 세미나, 유학설명회, 워크샵과 방학수련회 등을 조직하여 회원들이 학자의 길을 가도록 독려했습니다. 지난 24년간 100여명 후학들이 박사학위를 받고 국내.외 우수 대학, 정부기관, 연구소, 국제기구 등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경제학회와 한국국제경제학회의 사무차장, 한국계량경제학회 미시이론연구회 간사 및 평의원, 산업조직학회 사무국장과 학술지 편집위원장, 정보통신정책학회 이사 등으로 힘을 보탰으나 성과는 미천합니다. 더욱이 지난 15년간은 교무부처장, 학부대학 학장, 기획실장(2012-2016), 상경대학장 겸 경제대학원장(2022-2024) 등으로 교내 행정과 교육에 집중하는 바람에 대외활동이 다소 저조하였습니다. 다른 한편, 매년 1조원의 예산 배정.집행 및 결산.감사, 조직 개편과 평가, 교육환경 개선 초대형사업, 대학 발전기금 모금, 인천송도 레지덴셜 교육 프로그램 편성 등의 경험은 나름 소중한 무형자산이라 하겠습니다. 제가 학회에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떻게든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족한 제 소개를 두서없이 드렸습니다. 한국경제학회에서 봉사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학회와 사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 약 사 항

1. 다양한 지역, 세대, 이념, 세부전공을 아울러 포용하는 학회 활동을 추구하겠습니다.

1A. 학술 연구와 토론의 장을 더욱 내실화함은 물론 **우리 경제와 사회의 핵심 문제를 분석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경제구조 연금개혁, 가계부채와 인플레이션 리스크, 보편적 복지를 둘러싼 시장과 정부의 역할분담,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업경쟁력 강화 등 난제가 많습니다.

1B. **공동학술대회, 심포지엄, 정책세미나, 연구회, 온라인 플랫폼 등을 더욱 포용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보수-진보, 중앙-지방, 노년-청장년, 남-녀 등 다양한 이해관계와 배경을 가진 회원들의 활동을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1C. **지역적 특성을 살린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1) 지회에 대한 예산 확충; (2) 정책 포럼이나 세미나의 지회 개최; (3)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기업, 시민단체 등의 참여와 지원을 유도하겠습니다.

1D. 학회 내 다양성을 증진하고 포용적인 학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가칭 **‘다양성 및 포용성 위원회’를 신설·운영**하겠습니다. 이 위원회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경제학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필요와 제안을 학회 운영에 반영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2. 주요 학술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내고 이를 계기로 연구 시너지와 파급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한국경제학의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2A. 매 5년마다 개최되는 세계경제학자대회(World Congress of the Econometric Society)는 다수의 노벨상 수상자, 석학, 교수와 연구자, 세계 경제 리더들이 참여하는 경제학 분야 최고·최대의 행사로서 2025년 8월 국내 개최 예정입니다. 그간 주요 학회장들과 학자들이 일치단결하여 동 대회를 유치하였고 준비위원회에서 빈틈없이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경제학회는 준비위원회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학계, 정부, 공공기관, 기업들과 협력과 지원을 최대한 이끌어내고 세계경제학자대회를 성황리에 치러내**겠습니다.

2B. 학술 축제가 일회성 행사로 지나가서는 그 의미가 퇴색할 것입니다. 해외 석학, 학자, 대학원생들과의 **교류를 통해 국내 학자들과 대학원생들의 후속 연구로 이어지도록 가교 역할**을 학회가 수행하겠습니다.

2C. **신진 경제학자**(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하)들이 연구와 학문 활동에서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연구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겠습니다. 학회의 자체 연구기금의 확충과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으나, 그것만으로 불충분한 경우 한국연구재단, 주요 대학, 전공분야별 학회들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분담 지원하겠습니다. 신진 경제학자를 위한 연구 종잣돈 지원, 국내외 학술대회 참가비 지원, 해외 학자나 대학원생과의 연구 아이디어 교류 플랫폼 마련 등을 실행하겠습니다.

2D. 학회 활동과 평생회원 구성의 무게중심을 중진·원로에서 **신진·소장으로 옮기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신진학자나 대학원생은 물론 우수한 학부생의 연구논문 발표까지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전(학·석사 과정 기간 포함)에 한국경제학회가 인정하는 국내외 학술대회에 일정 횟수 이상 등록하여 논문 발표를 할 경우 **평생회비 대폭 감면**을 제도화하고 그에 따른 재원은 기부금으로 충당하겠습니다.